

차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10%대... '空約'으로 끝나

그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박근혜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10%대에 머무르는 등 사실상 '공약'(空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할 다음 정부에서 지역 현안들의 지속적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대선 당시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권의 '호남 홀대'가 지속되면서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주=박 전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사업은 7대 14개 세부사업으로 총

광주 14개 사업 4조2103억
'차100만대' 국비 5% 반영
亞문화수도 육성도 '짚뭇'

사업비만 4조2103억원이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등이 주요 공약이었다. 하지만, 임기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비 반영액 등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률은 14.5%로 집계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와 취임 이후에도 수 차례 사업 추진을 강조했던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도 총 사업비 3030억원 중 올해까지 국비 160억원만이 반영됐다.

전남 11개 사업 6조4835억
호남고속철 국비 14.8%만
8개 공약사업 지지부진

아시아문화수도 육성 사업 또한 총 사업비 5500억원 가운데 15%정도인 1563억원만 국비로 반영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짚뭇 예산'에 그쳤다.

한국 민주주의 정당 건립과 민주·인권·평화 캠퍼스 조성사업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단 한푼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또한, 총 3490억원을 투입해 광주 도심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공약도 국비 반영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이밖에 광주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공사와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도 단 한푼의 국비도 반영되지 않는 등 5개 공약사업은 아직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

◇전남도=박 전 대통령이 전남에 공약한 7개 부문 11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국비가 35억원에 불과한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사업만이 완료됐을 뿐이다. 현재 추진중인 8개 공약사업도 국비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만 올해 예산에 8개 공약사업비 5560억7000만원이 반영되면서 진척률이 높아졌다.

7대 부문 11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는 6조4835억원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조682억5000만원(16.48%)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세부 공약사업별로는 ▲여수~남해 간 동서해저터널 건설(국비 5040억원)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290억원) ▲과학로켓 센터 구축(150억원) 등 3개 공약사업은 삼도 뜨질 못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는 무안공항 경우 문제로 논란을 빚으면서 2조4731억원의 국비 중 14.80%인 3660억원만이 반영됐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1조7990억원) 역시 1968억원이 투입돼 10.9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공약 중 여수세계박람회 효율적 사후활용(580억원)에는 2013년부터 고작 3.55%에 불과한 20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항공기 비행종합시험장 구축(국비 413억원)사업에 246억3000만원이 투입

되면서 59.64%의 진척률을 보인 것이 가장 높은 성과다.

영암·해남관광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1284억원)에는 561억8000만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사업(1조3886억원)에는 4005억원,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공약 중 고성능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436억원)에는 165억5000만원 등이 지원돼 각각 21.88%, 28.84%, 37.96%의 높은 진척률을 보여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결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도비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에는 새 정부가 어떠한 방침을 내놓을 지에 따라 문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광옥 비서실장 등 靑 비서실·안보실 참모 일괄사표

“대통령 파면 도의적 책임”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최고위급 참모들이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콘트롤타워 핵심 인사들까지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각각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표 제출 시기를 고민해 오다가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남에 따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1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의를 표한 인사는 한 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조대환 민정수석·김규현 외교안보수석·정진철 인사수석·배성례 홍보수석·강석훈 경제수석·현대원 미래전략수석·김용승 교육문화수석·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 9명의 수석비서관들이다. 국가안보실에선 김관진 실장과 조태용 1차장 등이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결심했다.

다만, 한 비서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떠나 전날 삼성동 사저로 복귀함에 따라 공식적인 사의 표명 시점을 이날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황 권한대행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이 경찰과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말했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5월9일대로 예상되는 조기대선 및 위기상황 국경관리를 위해 이들의 사표를 전원 반려하거나 일부 수석들의 사표만 선별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사드 배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위협,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과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의 황 권한대행 보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천정배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노벨상 추천을”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은 13일 “대한민국 촛불국민을 대표해 비폭력 평화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 130일 이상 전국에서 20차례 1600

만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는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을 단호하게 요구하면서 시종일관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천 전 대표는 “광범위한 국민의 서명을 통한 노벨평화상 추천 국외 청원과 국회가 민의를 반영한 노벨평화상 추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시장 “공직자 대선 중립·공약 발골 노력해야”

윤장현 광주시장은 13일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열정이 필요한 때인 만큼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시민 주권 혁명으로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만큼 공직자도 역사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나가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촛불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물었다”며 “두 달 안에 새 선거를 준비하고 시민과 새 희망을 만드는 일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일은 중앙정부

와 달리 민생에 있는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소수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는 일지리를 만들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시장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대선을 앞두고 철저한 선거관리와 공무원 중립, 대선 후보자에게 제시할 공약 발골을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험기악격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촛불정신 계승” 시민사회, 대헌장 제정 본격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촛불시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정치 개혁을 골자로 한 대헌장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이장희 국민주권 2030포럼 상임대표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 시민혁명 요구의 한국판 대헌장 제정 및 공동 추진기구를 위한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 촛불시위의 성과를 계승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시민사회와 정치권, 종교계가 힘을 합쳐 대헌장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장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공동추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121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제정된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은 왕을 포함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된 대헌장 공동

추진기구 제안자 명단에는 이 대표와 정동영 의원 포함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 법타스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칠 수 있어 제안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촛불 시민혁명 계승과 정치개혁을 위한 대헌장 제정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 혁명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맺어야 한다”며 “대선 이후 누가 국정을 책임지더라도 이 약속을 국가 개혁과 국정 기본 철칙으로 삼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 등 입법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촛불시위를 ‘촛불 시민혁명’으로 공식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임대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원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만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 포함)

토지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성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국제마음훈련원

참마음 훈련

참마음 훈련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훈련을 통해 알고, 기르고, 잘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이며, 아래와 같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초대 합니다.

주제 일심 알음알이 실행으로 감사받은 하사

일시 | 2017년 3월 21일(화) ~ 24일(금)
※후반기 참마음훈련은 8월 15일 ~ 18일에 있습니다.

장소 | 국제마음훈련원

접수 | 국제마음훈련원 061-353-1043, 010-8669-0527

훈련비 | 20만원

준비물 | 세면도구, 모자, 편안한 복장, 운동화, 여벌옷 등

주소 |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840

국제마음훈련원 전경